

김유진

서울 [의과대학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교실 교수이다.

수상

- 2019년 4월 13일 대한소아마취학회 '최우수 학술상' 수상 ^[1]
 1. 대한소아마취학회 학술상은 직전 해에 소아마취와 관련된 주제로 SCI 및 SCIE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2. 김 교수는 논문에서 마취 각성기의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약물이나 특별한 처치 없이도 쉽게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전신 마취 후 소아환자의 각성 흥분 및 불안을 줄이는 예방법이라는 것을 밝혀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 논문은 지난 2018년 8월 마취통증의학분야 최고의 학술지인 <British Journal of Anaesthesia(인용지수=6.499)>에 게재된 바 있다.
- 2022년 6월 11일 대한소아마취학회 '최우수 학술상' 수상
 1. 김 교수는 학령기 이전 영유아 환자에서 전신 마취 후 회복기에 나타나는 이상 행동인 '각성 섬망'을 보이는 환자의 뇌파를 정상 대조군과 비교한 차이를 연구했다. 특히 취약한 뇌구조를 가진 영유아 환자에서 전신 마취 노출 전후로 발생하는 뇌파의 패턴을 정상 아동과 비교해 차이점을 발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2. 해당 연구는 지난해 세계적으로 저명한 마취통증의학계 SCIE 저널인 '영국 마취학 저널(British Journal of Anaesthesia, IF=9.166)'에 게재됐다.

1. [↑] 뉴스H 기사 <http://www.hanyang.ac.kr/surl/vMNx>